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oise university	파견기간	2025.1.8-2025.2.8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p>저의 경우 작년 여름에도 해외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이 시기의 해외 경험이 제 시야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졸업 이후 해외 취업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배우기 위해 참여했습니다.</p>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p>프로그램 전 이메일로 등록하고 학비 납부하게 됩니다. 1,537달러 정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이 공지해주시니 제때 기한 맞춰 제출하며 프로그램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달 전 분반을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에 따라 분반이 결정되니 꼭 성실히 테스트 보시길 바랍니다.</p>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항공권은 연초에 비싸져서 여행할 겸 연말에 일찍 출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인천<->시애틀 (대략 110만원)티켓과 시애틀<->보이시 (대략20만원) 왕복 티켓 각각 구매했습니다. 최대한 미리 알아보며 저렴한 때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여행자 보험은 담당자 분께서 특방에 소개해주신 보험자분께 들었습니다. (대략 5만원)</p> <p>비자의 경우 ESTA 비자 발급 방법 인터넷 참고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적어도 2-3주 전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환전은 100달러 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라 미리 해 둔 현금으로 최대한 결제하며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외에 현금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토스뱅크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p> <p>기숙사 용품이 아예 없어서 룸메들과 마트에서 모든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지출이 컸습니다. 큰 드라이기, 세탁세제&섬유유연제, 기숙사 내에서 신을 슬리퍼, 설거지수세미&세제, 개인 손가락&젓가락, 프라이팬, 냄비, 참치캔, 햇반-한인 마트, 월마트, 윙코 등 쌀을 팔긴 하지만 햇반을 가져가면 돈도 아끼고 편합니다. 햇반이 떨어지면 윙코에서 cooked rice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에 끓이면 바로 밥이 되는 쌀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쌈장이나 김치, 삼겹살 소스, 라면 등 짐 용량이 된다면 가져가면 좋습니다. 기숙사가 난방이 잘 안 되고 많이 추웠어서 전기장판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lepinfo 담당 선생님께서 이메일로 각종 event, guide 보내주시니 잘 읽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설	교육 시설 좋았습니다. 강의실 잘 관리되어있고 수업 진행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숙소 시설	The osprey 기숙사 배정 받았습니다. 신규 숙소라서 그런지 아주 쾌적하고 저희가 처음 배정받아 쓰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3층이었고 방 네 개에 양쪽 끝 방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 두 개 방은 복도에 화장실이 각각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개인으로 쓰고 방도 혼자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주방도 넓고 거실에 쇼파와 식탁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좋았습니다. 기숙사 2층에는 학교 rec 센터보단 작지만 헬스장에 주요 기구들도 있어서 저녁마다 운동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수업 동까지의 거리가 도보 20분 정도로 멀었던 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편의 시설	근처 대형마트 중 가장 저렴한 winco 추천, the osprey 기숙사 기준으로 orange shuttle 타고 다운타운 가시면 됩니다. 기숙사 앞에도 편의점은 있습니다.
	기타 정보	기숙사 용품이 아예 없어서 룸메들과 마트에서 모든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지출이 컸습니다. 큰 드라이기, 세탁세제&섬유유연제, 기숙사 내에서 신을 슬리퍼, 설거지 수세미&세제, 개인 손가락&젓가락, 프라이팬, 냄비, 참치캔, 햇반-한인 마트, 월마트, 윈코 등 쌀을 팔긴 하지만 햇반을 가져가면 돈도 아끼고 편합니다. 햇반이 떨어지면 윈코에서 cooked rice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에 끓이면 바로 밥이 되는 쌀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쌈장이나 김치, 삼겹살 소스, 라면 등 짐 용량이 된다면 가져가면 좋습니다. 기숙사가 난방이 잘 안 되고 많이 추워서 전기장판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Boise라는 도시 자체가 boise university를 위해 지어진 것만 같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보이시 대학 학생들에게는 보이시 지역 내 전 버스 요금이 무료였다는 점이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기숙사부터 수업동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었는데, 학교 전체를 도는 shuttle이 있어서 시간에 잘 맞춰타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다운타운 내 Winco라는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알버트선스와 월마트, 다른 마트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식품들을 팔아 좋았습니다. 학교 내 학식도 원화 2만원 정도로 뷔페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보이시 내에 있는 바비큐나 타코, 쌀국수 집도 맛있습니다. 식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선 마트에서 재료만 구매해 요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다같이 고기를 구워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아침에는 씨리얼과 빵 같은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도 학교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해줄 때가 많아서 비용 부담 없이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내의 펜트리랑 학교 근방 펜트리 알아보시면 무료로 필요한 식재료를 받을 수 있으니 룸메들과 잘 생각해서 필요한 음식들을 받으면 더욱 식재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행사에서 간식을 많이 제공해주니 너무 욕심 부려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관광지 정보	테이블 락 크로스는 아침 일출 보러 꼭 가지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boise zoo, 줄리아 데이비스 공원, 그린 벨트, 플라잉 엠 커피 하우스, 다양한 빈티지 샵, 인앤아웃, 캐멀스 백 공원, bogus basin
	기타 정보	차가 없으면 아쉽게도 boise 밖 멀리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boise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를 렌트해서 근방에 있는 남파나 메리디언 정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보이시 내에서도 한달 동안 매일같이 다양한 파티와 행사, 모임 등에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수업은 communication, writing, free talking 총 세 수업이었고 월,수,금 9:35-12:15 writing 화, 목 communication 9:35-12:15, 월 1:00-3:00 free talking 이었습니다. 각 수업마다 선생님이 계셨고 같은 반 친구들은 거의 함께 온 상명대 친구들이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몇몇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Writing, communication 수업은 Level 3,4,5 세 분반으로 나뉘었고 free talking 수업은 함께 온 상명대 친구들과 진행했습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신문 기사, 문학 작품 등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것, 단어 정의 뜻풀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각종 게임들,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활동 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어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시를 짓고, 수업 대부분 옆의 짝과 영어로 대화하거나 팀원들과 의견에 대해 묻고 답하는 거였습니다. 아쉬운 건 수업을 같이 온 한국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계속 써야 했고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야 하고 계속 영어를 쓰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업에선 writing과 communication 둘 다 최종 테스트가 있습니다. communication에서는 주어진 주제로 speaking 발표를 했고, writing 수업에서는 essay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강사진	교수님들 모두 열정적이고 따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학교 내 독서 클럽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기타 정보	학교 내에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는데 달에 45달러 지불하면 센터 내에 있는 모든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장, 클라이밍, 헬스장, 농구장 있으니 운동복 챙겨오시고 수영복도 챙겨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 바레, 웨이트, 스피닝 같이 다양한 수업도 있으니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IEP에서 international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점심을 free lunch 로 제공해주니 꼭 가서 현지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교류하시길 추천드려요. 매주 화요일은 free taco가 있고, 기독교 모임 CRU meeting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내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downtown boise 행사도 라이언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event 링크에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line dance를 배우러 춤 동아리에 참여하여 현지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고, 학교 내에서 배개 같은 소품 만들기도 해 봤으며, rec center에서 스피닝, 요가, 농구, 헬스 같이 다양한 운동도 많이 해 봤습니다.
	기타 정보	저는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iep에서 가까워진 분의 소개로 알게된 현지 부부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rock cross church로 픽업해 주셨고 점심도 함께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보이시에 살고 계시는 한국 가족을 만나기도 해서 직접 집에 가서 맛난 한식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가스펠 송과, 다양한 분들과의 대화가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꼭 종교가 없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현지인들과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해졌고, small talk에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녹여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원어민들의 소통 방식을 배우며 실전 영어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제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장점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이시 대학교에서의 생활 적응이 더 빠르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학교 연수 특성상 따로 어학연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감면으로 진행된다 보니 연수 전 큰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등록금과 별개로 금액을 지원해주거나, 항공비나 기숙사 특정 비용을 미리 지원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x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설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대화가 아닌 부분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Boise	파견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8~2.8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음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안내에 따름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각자 해야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안 해도 될 만큼 딱히 필요하지 않았음. 적은 금액 환전 추천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깔끔하고 모둠활동 하기 좋아요			
	숙소 시설	4인 숙소였고 거실과 주방이 공용, 한 명당 방과 화장실이 각자 있었음. 숙소가 신설이라 그런지 좋았습니다.			
	편의 시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버스 이용. 학생증 있으면 무료
	식사 여건 및 비용	외식 비용이 비싸지만 (특히 환율 때문에..) 맛있어요
	관광지 정보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하루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의 수업을 듣습니다.
	교육 내용	전반적인 영어 스킬 골고루 다룹니다. 저희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수업이 있었어요 문법은 없었습니다.
	강사진	클래스마다 다른 강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강사님은 학생들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free talking 시간 있습니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수업 말고도 만들기 등 체험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별도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기타 정보	이런 활동들 안 하고 따로 인원 모아서 미국 다른 지역 여행도 많이 갑니다. 미리 항공권 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좋아요
	프로그램 장점	여러 활동들이 많아서 좋았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문법 수업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 공지 내용 잘 읽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핫팩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여행도 함께 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샌프란, LA, 시애틀 등등 많이 여행 다닙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5.01.08~2025.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지를 해주십니다. 계좌이체로 등록했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4주라서 ESTA 발급받아서 갔습니다. 항공권은 각자 구매하시면 되고, 여행자 보험은 오픈채팅방에서 소개도 해주신 하는데 따로 구매해서 갔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보이시에만 있으실거면 많이 안하셔도 되는데 긴급용으로만 챙기셔도 될거예요. 학교 내에서도 비자카드면 다 됩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보이시에 있는 대학교			
	교육 시설	넓고 쾌적한 시설들			
	숙소 시설	Osprey 기숙사를 썼는데 4명이 같이 쓰고 1인1실에 화장실도 개인별로 1개씩 있습니다. 방 이름이 ABCD인데 A,D는 방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고, B,C는 방 앞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랑 식탁 있고, 주방에는 인덕션, 냉장고, 수납장, 식기세척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은 하나도 없어서 사오셔야 합니다. 기숙사 방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 붙어서 있으니까 빨래하시기 편하실거예요.			
	편의 시설	운동센터 있습니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보이시 내에만 있다면 셔틀버스와 일반버스 모두 학생증으로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학교 내에 식당은 버스타즈 (뷔페식 학생식당) - 점심기준 약 2만원, 판다익스프레스-, 써브웨이, 스타벅스 등등 있습니다.
	관광지 정보	테이블락. 보이시 시청 구경하실만 합니다.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communication, reading&writing 수업과 자율수업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내용	communication은 주제로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reading&writing은 반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말 그대로 쓰거나 문학 읽는 수업입니다.
	강사진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기타 정보	수업은 금요일에 12시 10분이면 끝납니다. 금토일과 공휴일 활용해서 여행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프로그램 장점	문화를 배우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 많이 있어요. 프리런치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찾아서 참가해보세요. 한인타운은 없지만 한인마켓은 있어요. 우버타면 2만원정도 나오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는걸로 아는데 한식 먹어야 하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시는 김에 주변 미국 여행은 많이 다닐수록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작 전후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4주 내내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여행할 도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수업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경험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5. 1. 13. ~ 2025. 2. 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자 프로그램을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어학원 측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비 납입 안내서' 파일을 오픈채팅방으로 보내주셔서 파일 안내에 따라 납부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각자 스스로 진행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ESTA 비자로 신청하라고 하셔서 ESTA 비자로 신청함. (오픈채팅방으로 ESTA 비자 신청 관련하여 설명되어 있는 파일과 ESTA 비자 신청 링크를 보내주심. 신청 방법은 간단함.) - 항공권: 학교 입학허가서가 나온 후에 항공권을 예매하라고 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 예매함. 하지만 입학허가서가 예상보다 늦게 나왔음. (항공권은 출국 날짜와 가까워질수록 비싸지니 최대한 빨리 예매하는 것을 추천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으로 진행된 OT에서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정보와 준비물들을 알려주심. - 본인은 현금, 트래블월렛 카드, 신용카드 2개(신용카드는 비상시나 트래블월렛 카드 분실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를 가져감. 트래블월렛 카드에 돈을 조금 환전해서 갖고, 부족할 시 트래블월렛 카드에 그때그때 환전하여 사용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미국의 Idaho 주, 그 중 Boise에 위치한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강의실은 깔끔한 편으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임.
	숙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4인 1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방 안이 또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자가 자신의 1인실 방을 이용할 수 있음. - 1인실 방에는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책상이 각각 놓여있음. 그리고 침대에 깔 수 있는 하얀 천 2개, 파란 이불(?) 2개(재질이 이불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기에 담요를 미국에서 사거나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함), 베개, 베개 커버, 큰 수건 1개, 작은 수건 1개가 있음. - 주방: 룸메이트 4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주방. 방 안에 있어 편리함. - 화장실: 방마다 상이하지만 본인의 방에는 총 3개가 있었음. -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 빨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음. - 기숙사는 학교 밖에 위치하지만 강의실까지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므로 많이 먼 거리는 아님. 셔틀버스 시간에 맞게 출발한다면 버스로 편하게 강의실로 이동할 수 있음.
	편의 시설	스타벅스, Chick-fill-A, 서브웨이, 판다익스프레스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있음.
	기타 정보	보이시는 미국의 시골에 속하는 동네로,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치안도 좋고 많이 위험한 도시는 아니지만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좋음. 보이시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친절했으며 인종차별 당한 경험도 없었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에서만 운영하는 셔틀버스, downtown까지 갈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음.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평일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스가 끊김. 학교에서 진행되는 OT에서 버스 이용에 대해 안내해 주심.) → 셔틀버스는 보이시 주립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면 모두 무료임. - 버스가 끊기거나 버스로 갈 수 없는 장소들은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함. (우버와 리프트의 가격을 비교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에 다른 파견생들과 날짜와 시간을 맞춰 함께 이동하는 것을 추천함.)
	식사 여건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식(Buster's Kitchen): 뷔페식으로 가격 대비 퀄리티가 훌륭함. 음료와 과일,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어 매우 알참. 점심은 14달러, 저녁은 18달러 정도 하니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 - 직접 요리: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도 자주 해먹음. 물가가 비싼 편이라 매일 사먹을 수는 없으므로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해먹음. 고기가 매우 싼 편이니 고기를 구워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 수업이 끝난 후 오후 시간에 관광을 하면서 다양한 식당들도 가보는 것을 추천함.
	관광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se Downtown: 여러 가게들이 모여있는 시내. 도보로 15-20분 정도 소요되어 걸어서 갈 만한 거리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음. - Idaho State Capital: 아이다호 주 의사당 - Table Rock: 일출이 매우 예뻐. 해가 뜨기 전에 걸어서 올라가야 하므로(어두우므로) 같이 갈 사람들을 모아 가는 것을 추천함. - BoDo CINEMA: 다운타운에 위치한 영화관.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함. - Matador: 다운타운에 위치한 멕시칸 요리 가게로, 보이시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음.
	기타 정보	<p>기숙사 바로 앞에 편의점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마트보다는 비싼 편이니 장을 보러 갈 때 구매할 것들을 생각해서 한 번에 사오는 것을 추천함.</p>
교육 정보	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ding & Writing, Communication, Talk Time으로 구성됨.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ding & Writing: 원서 읽기, 주어진 주제로 글 또는 에세이 쓰기를 주로 진행 - Communication: 주로 다양한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목적 - Talk Time: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으로, Idiom과 Slang을 배움.
	강사진	<p>강사진은 모두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학생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말씀해주심.</p>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p>X</p>
	기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연수 파견 전 시험을 치루고,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반이 배정됨. - Reading & Writing과 Communication 수업은 종종 숙제가 있고, 개별 발표도 있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과 주말은 각자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시간임. - 본인은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하여 다른 도시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함. 이왕 미국에 간 김에 어학연수 전, 후, 중간에 다른 도시들을 여행 다녀오는 것도 추천함.
	기타 정보	X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4주라는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트나 식당 등 여러 장소나 상황에서 영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간단한 회화를 하게 되고,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에 있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 회화 표현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영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므로 영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 기본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게 4주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상명대학교 학생만 약 20명이었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약 80-90% 정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본인, 베트남인 등의 외국인도 있어 종종 대화도 나눌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았다면 더 배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다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X
기타 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시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본인의 경우 너무 건조한 나머지 손이 갈라져 상처가 나기도 했으니 주기적으로 발라줄 핸드크림과 바디로션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기숙사 내에 정수기가 있으니 텀블러를 챙겨주세요. - 교통: 우버와 리프트가 가격이 때마다 바뀌므로 그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Uber, Lyft 등 해외에서 사용할 앱들은 모두 한국에서 다운받은 후 꼭 회원가입까지 마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하려면 회원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숙사에는 특별히 제공되는 조리도구가 없습니다. 한 달동안 사용할 간단한 식기구(프라이팬, 냄비), 손가락, 젓가락, 전자레인지 가능 용기, 칼, 주방가위, 소금 등은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햇반을 많이 가져가세요. 다른 음식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하면 되지만 밥은 쌀을 사지 않는 이상 밥을 해먹기 어려우므로 햇반이 필요하게 됩니다. - dollar tree라고 한국의 다이소 같은 가게가 있으니 식기구나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그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양한 마트들이 있지만 Winco가 가장 싼 편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에 'Pantry'라고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조금 지난 식재료나 생활용품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지, 샴푸, 린스, 바디워시, 식재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어학연수 초반부터 가보시길 바랍니다. - 다른 파견생들 혹은 현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귀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시고, 활발하게 어학연수를 즐기신다면 잊지 못할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5.01.13.~02.07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회화 실력을 기르고 싶었고,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p>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p> <p>동계 어학연수 신청 공지는 10월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학점순으로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합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수 포기자가 생겨 추가합격으로 가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담당자께서 어학연수 등록금 납부 계좌와 금액을 알려주시면 납부하면 되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나오기는 하나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제외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p>
	<p>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p> <p>ESTA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이는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 또한 담당자분이 소개해주신 보험 설계사분께 안내 받아서 가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시까지 직항은 없어서 경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저는 LA에서 경유했고, 시애틀에서 경유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항공권은 담당자분의 안내에 따라 보이시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알아보기 시작해 구매했습니다.</p>
	<p>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p> <p>대부분의 곳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챙겨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돈을 분산시켜 여러 개의 카드를 지참하시길 권장하며, 현지에서 카드를 모두 소지하며 다니기보다는 소지하는 것과 두고 다니는 것도 나누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은 학우를 봤습니다. 또한, Winco라는 마트는 한국인이 흔히 여행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에 현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금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p> <p>겨울에 가신다면 이불이나 큰 담요, 전기장판 혹은 온수매트 등을 지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서 나눠주는 이불이 있지만 덮는 이불은 굉장히 얇고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또한 히터가 잘 나오지만 방이 쉽게 건조해지기에 오랫동안 틀지 못하고 히터를 튼 것과는 별개로 잘 때 새벽에 추워서 전기장판이 있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습니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아이다호주의 주도인 보이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넓고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어학연수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이동 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학연수 담당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잘 배려해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노력해주십니다.
	교육 시설	어학연수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실은 한국 대학교 강의실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력 학습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 시설	교외 기숙사인 The Osprey에서 생활하였는데, 신식 건물이라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4인 1실이었지만 1명에게 방 하나씩 배정 받았고, 2개의 방에는 화장실이 방안에 있어서 4명이서 화장실도 각자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벌레도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기본적으로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한 세제나 쓰레기통, 쓰레기봉투, 휴지 등은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와 장을 보다 보면 마트에서 받은 봉투들이 많아져서 쓰레기봉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봉투로 대신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분리수거를 한국 만큼 철저히 하지 않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에 직접 버리기보다 싱크대 배수관에 음식물을 갈아주는 기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아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릴 필요 없이 배수로로 내려갑니다. 기숙사에 헬스장도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바비큐장도 있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도 있습니다. 각 층마다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교외 기숙사에는 있습니다.
	편의 시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Recreation center라고 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요가, 바레, 수영 등 운동수업을 강사에게 들을 수 있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링장, 당구장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타 정보	학교의 국제학생들을 위한 모임과 이벤트를 주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다른 이벤트를 하는데 같이 스케이트나 눈썰매를 타기도 하고 홈파티를 하기도 하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의 동아리에서 무료 점심 행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매주 화요일 Free Taco를 나눠주는 곳도 있고, 매주 목요일 Free Lunch를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이용하면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 경기장에서 농구 경기나 배구 등 스포츠 경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학연수 담당자 분께서 첫날 한 달 이용 가능한 유심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유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p>학생증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여주면 보이시에 다니는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없습니다. 버스가 평일에는 7시쯤이면 대부분 끊기고, 일요일에는 버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세 종류 있습니다. 캠퍼스만 돌아다니는 버스, 다운타운까지 나가는 버스 등 이 셔틀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운타운까지 학교에서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웬만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모여 있는데 전부 걸어서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 셔틀버스 타도 가능합니다.</p> <p>우버나 리프트도 아주 잘 잡힙니다. 다만 비용이 좀 나가기에 다른 분들과 모여서 나눠낼 수 있을 때만 주로 이용하고, 짐이 많을 때만 이용했습니다. 혹시 리프트를 사용하실 분들은 설정에서 꼭 '하루에 이용한 결제를 즉시 결제하기'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용한 내역을 한 번에 결제하기'로 설정돼있는데 한국 와서 갑자기 리프트 이용 금액이 빠져나가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프트 측에서 다시 정산 후 금액을 돌려주긴 하지만 혼동을 막기 위해 설정을 미리 변경해놓으심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p>
	식사 여건 및 비용	<p>학교에 식당이 잘 돼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칩필레, 판다익스프레스, 스타벅스, 베이글, 뷔페식의 학식, 초밥 등 다양합니다. 다만 매번 사먹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룸메이트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것이 절약하기 좋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 쪽에 전자레인지도 비치되어 있어 이용 가능합니다. 학식은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먹어보고 싶던 식당만 몇 번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p> <p>교외 기숙사 바로 앞에 피자과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 메뉴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는 파이브 가이즈, 판다익스프레스, 치폴레 등 프랜차이즈 식당도 있고, 버팔로윙 펍, 베이글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컵밥집과 떡볶이나 김밥 등을 판매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기숙사와 학교 근처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식당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외식을 하게 될 경우 팁을 포함해 끼니당 기본 20000원 정도는 지출하게 되니 비용부담이 큽니다.</p>
	관광지 정보	<p>다운타운: 미술관(보이시 학생은 무료 입장), 박물관(보이시 학생 할인 가능), 도서관(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대여는 따로 카드를 만들어야 함), 아이스하키 경기장(경기 입장료 지불), Trader Joe's/Winco(마트), 펍, Bodo Cinema(최신 영화 상영, 전석 리클라이너, 한국어 자막은 없음), 벽화거리(작지만 예뻐요), Idaho State Capitol(우리나라 시청 같은 개념으로 있는 주의회 건물, 외관도 예쁘고 내부도 구경 가능함)</p> <p>기숙사 근처: 폐기차역, Ann Morrison Park</p> <p>버스로 20분 이동하면 Boise Town Square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느낌의 쇼핑센터인데 GAP, Victoria Secret, H&M 등 옷을 살 수 있고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Cheese cake factory라는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는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음식이 맛있어 추천합니다.</p> <p>버스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The Village at Maridian이라는 아울렛이 있습니다. 브랜드멜빌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잘 찾아보면 할인 상품도 많습니다.</p> <p>Bogus라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눈썰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스키장까지 하는 셔틀버스를 연결해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키장비는 학교에서도 대여 가능합니다.</p> <p>학교에서 30분 정도 이동하면 Table Rock이라는 관광지가 나옵니다. 산인데 일출 보기 예쁩니다. 다만 여기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힘들어 우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버 타면 등산로 입구에서 바로 내릴 수 있고, 20분 정도 걸어올라가면 정상에서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팟이 나옵니다.</p>

교육 정보	강의 구성	<p>4주 연수생들은 Reading&Writing, Communication, Speak Easy라는 3가지 수업을 듣게 됩니다. Reading&Writing에서는 소설이나 기사 등 다양한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합니다. 교재도 같이 사용하며 독해 연습이나 그룹과 토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도 하고 교수님께 첨삭도 받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평가과제가 있었습니다. 평가 전 교수님과 연습도 많이 하고, 질문도 잘 받아주시기에 큰 부담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주 글을 읽고 요약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영영풀이를 써오는 등의 간단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Communication에서는 교재에 나오는 주제로 speaking 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제가 Trend였는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하나 선정해 발표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Reading&Writing보다 학우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훨씬 많은 수업입니다.</p> <p>위 수업 2가지는 레벨에 따라 분반이 나뉘지고 분반별로 다루는 수업내용이 다릅니다.</p> <p>Speak Easy는 상명대생끼리만 듣는 수업이었는데 아이다호와 보이시의 정보, 문화 등을 배우거나 영어 슬랭을 배우는 등 실생활과 문화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만 있지만 교수님께서 영어 사용을 규정하시기에 영어로 말할 기회도 많습니다.</p>
	교육 내용	강의 구성에 써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진	레벨에 따른 분반별로 교수님들이 다른데 대부분 만족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임을 알기에 속도도 조절하고, 모르는 내용을 항상 설명해주시고 쉽게 풀이해주시며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정규수업 외에 학교 동아리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4주 연수생들은 너무 짧아 다들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타 정보	정규수업에는 어학연수생들만 참여하기에 실제 미국 학생들과 수업을 듣지는 못합니다. 제가 연수에 참여할 때 일본, 베트남, 남미,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국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거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면 국제학생들을 위한 모임 같은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학교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보이시에 갈 때나 한국에 갈 때 모두 경유를 해야 하기에 연수 전후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연수 끝나고 LA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아이다호주와 가까운 관광지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타 정보	보이시에는 한인타운은 없지만 우버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하면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김치를 구매하기에는 그 마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외에도 한국 음식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햇반과 신라면은 Fred Meyer라는 마트에도 팔고 조미김은 Albertsons 라는 마트에도 판매합니다. 한국에서 챙겨오면 도움되는 식재료는 양념류입니다. 소금, 후추,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굴소스, 다시다, 식용유 등은 가져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4주만에 영어 실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대화 실력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영어로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해졌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수업 내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놀거리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현지 담당자께서 많은 이벤트를 공유해주려고 노력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행사가 있기에 학교 홈페이지와 보이시 지역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 최대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SU (Boise State Univ)	파견기간	2025.01.08. ~ 2025.02.08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해외 경험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지원함.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회와 경험을 토대로 해외 인턴, 취업과 같은 기회로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후,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후속 과정이 이루어짐. 참가자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사전 조사 없이 일방적인 프로그램 진행만을 신뢰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고 느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 ESTA비자로 진행되었으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하루 이내에 처리 가능함. 항공권은 1월 초, 미국 대학교들의 개강 시즌을 피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함. 12월 말 혹은 1월 중순의 항공권과 1월 초 항공권의 가격 차이는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남. 여행자 보험 : 온라인으로 손쉽게 가입 가능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지에서 생활하며 얼마의 지출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트레블로그, 트레블일렛과 같은 즉시 환전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국가의 특성상, 여분의 현금 추천) 이외의 준비물은 현지에서 구비해도 충분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SU [BOISE STATE UNIVERSITY] 아이다호 주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아이다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이시(BOISE)에 위치. 학교의 규모와 퀄리티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음.			
	교육 시설	BSU 소속 기관인 IEP [Intensive English Program] 수강,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었으며, Level 1~5 중, 참가자의 수준에 맞는 반을 배정받음. 교사들의 수준이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함.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특성상 주도적인 수업 참여를 꺼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쉬웠음.			
	숙소 시설	캠퍼스 내외에 위치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었음. 기숙사의 청결, 시설, 방음, 규모 등 모두 만족스러웠음. 기숙사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천명이 넘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가 존재.			
	편의 시설	BSU가 위치한 Boise는 전형적인 College Town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도시 전체가 BSU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짐. 따라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 스포츠 시설, 문화 공간 등이 캠퍼스 주위에 존재함. 다운타운까지 도보 15분 내외로 도달 가능.			
	기타 정보	교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함. 학교 셔틀버스, 무료 음식, 체육시설, 행사 등 짧은 기간이라도 간편하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았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도시의 특성상 자차가 없으면 통행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기에 이동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만약 우버를 탑승하더라도 뉴욕 혹은 LA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이용 가능함. 대중교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식사 여건 및 비용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처 식료품점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생활함. 기숙사에 취사 시설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생활에 어려움은 전혀 없음.
	관광지 정보	동절기에 방문한다면 1시간 거리에 스키장, 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이용 가능함. 수업이 없는 주말에 항공편을 통해 타 지역을 여행가기 보다는 근교 여행지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함.
	기타 정보	운전이 가능한 경우 차를 대여하여 근교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Communication, Reading and Writing, Grammer 등의 수업이 개설.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
	교육 내용	분반별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강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음. 연습, 복습 혹은 과제를 내주시지만 간단하였음.
	강사진	매우 만족, 다양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수업을 제공해주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체험, 교외 활동과 같은 extra class 존재
	기타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외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므로 추천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항공권을 비롯한 다양한 비용은 개인이 조사한다면 아주 많이 아낄 수 있음.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본다면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
	기타 정보	타 지역을 관광하는 경우에도 호스텔, 무료 투어/관광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음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과 생활하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넘나드는 소통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 학습함. 단순히 언어적 역량의 증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본인의 관점에서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함.
	프로그램 장점	타국의 대학 시스템을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하며, 국내 교육과의 차이를 실감함. 본인이 받고 있는 교육의 최종 목표에 대해 재고하며 목표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기를 수 있었으며, 더 넓은 범위에서 성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한 달의 짧은 기간을 학생들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참여자와 파견 예정자들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전달받는다면 더욱 수준 높은 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정보력과 실행력만 있다면 한달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

프로그램명	2024 동계 단기 어학연수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boise state univ.	파견기간	2025.01.08.~02.08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지원 사유	해외취업의 뜻이 있어 방학에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가지고 싶었음.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홈페이지에 맞춰 수행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ESTA비자라 바로 나왔고,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은 개개인이 알아서 구매했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300달러 정도 했는데,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winco 마트가 카드가 안돼서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학교는 크고 굉장히 좋았음. 학교 안에 먹을 것이 다양해서 좋았음.			
	교육 시설	수업은 2개 교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깨끗하고 좋았음			
	숙소 시설	기숙사는 방마다 달랐지만,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신식이라 살기 너무 좋았음. 단, 이불이 최악이었음.			
	편의 시설	편의시설이 가까이 많이 있고, 학교 셔틀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좋았음.			
	기타 정보	학교 안에도 볼 것이 많고, 우리 건물 말고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다른 건물들도 많이 가보는 것을 추천.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 셔틀버스 및 시내버스가 무료여서 좋았지만, 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 우버를 많이 이용했음. 우버는 굉장히 비쌌.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사는 기숙사 룸메이트와 해먹을 수 있어 좋았고, 이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임. 한번 사먹으려면 패스트푸스가 기본 2만원인 나라임.
	관광지 정보	Camel's park, Depot, Table rock은 우버타고 갈 수 있어 경치 보기가 너무 좋고, 운전면허가 있다면 더 멀리 나가는 것을 추천.
	기타 정보	주변에 큰 스팟은 없으나 풍경, 이쁜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음. 찾아서 가는 것을 추천하고, 국제 운전면허증 가져와서 운전하는 것을 추천.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writing, communication으로 구성되어있고, 반은 수업마다 다르게 배정됨. 해외친구들은 반이 높을수록 많아서 높은 반을 갈 수 있다면 가는 것을 추천.
	교육 내용	Reading&Writing은 지금까지 수업들었던 것과 비슷한데,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씀. Communication은 영어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수업임. 수업은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음.
	강사진	반마다 선생님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심.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상명대학교 학생만 듣는 수업이 있는데, 그냥 친목 수업같은 느낌임.
	기타 정보	수업은 굉장히 재밌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나가는 수업들도 있음. 실제 외국인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어디를 가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천차만별임. 보이시를 벗어나지 않으면 돈을 많이 쓰지는 않음.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학교 사람들도 타과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음. 내 관심사와 같은 친구들이 많고 미국에 사는 것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음.
	프로그램 장점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말할 수 있어, 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어 좋았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없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룸메는 상명대 사람들임. 룸메들끼리 다니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진짜 중요함.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돈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고, 보이시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곳임. 다른 지역을 놀러다니는 것도 추천하지만, 미국 보이시에서 일정을 끝내고 다른 곳을 놀러가는 것을 추천함.